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9)¹⁾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I. 북미

[미국]

1. (2020년 12월 24일) 미국, 식육업계 노동자의 백신 우선접종 권장

2020년 12월 20일, 질병대체예방센터(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를 갱신했다(표). 이미 접종이 개시된 의료관계자 및 장기요양시설 입주자에 이어 75세 이상의 사람들과 필수불가결한 업종 중에서도 3000만 명의 최전방 근로자(단계 1b)에게 주 백신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그 후 연방백신을 실시할 것 및 우선 권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단계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	대상자 수	합계
1a	의료관계자, 장기요양시설 입거자	2,100만 명	2,400만 명
1b	필수불가결한 업종 내, 최전선의 노동자 75세 이상인 사람	3,000만 명 1,900만 명	
1c	65-74세의 사람 건강면에서 리스크가 큰 16-64세의 사람 1b 대상 외인 필수불가결한 업종의 노동자	2800만 명 8100만 명 2000만 명	4,900만 명
2	1A-1C 대상 외인 16세 이상으로 백신접종이 권장되는 사람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8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1b에 포함되는 최전방의 노동자에는 소방관, 경찰관, 교사 등 교육 관계자, 미국 우편공사를 포함한 배송업자, 식량 공급에 종사하는 농가와 식육업계 관계자 및 신선 식품점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월 4일에 북미식육협회(NAMI)는 전국돼지고기생산자협회(NPPC)와 전미육용소 생산자, 쇠고기협회(NCBA)라는 연명으로 CDC 및 각 주지사 앞으로 식육업계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망하던 중이었다.

이번 CDC의 발표에 대해 줄리아나 포츠 NAMI 회장 겸 CEO는 필수적인 업종의 최전선에서 계속 열심히 미국 가정에 식육을 공급하고 미국 농업경제를 지탱해 온 식육업계 노동자의 백신 우선 접종은 식육업계 종사자의 안전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식육업계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그는 또 정육업계 소유 최첨단 냉동시설을 저온보존이 필요한 백신 보관 장소로 제공해 정육업계가 백신 접종을 지원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NAMI에 따르면, COVID-19가 유행한 올봄 이후 식육업계가 부담한 감염예방 대책비는 이미 15억 달러(1,560억 엔, 1조 6,380억 원, 1 미달러=104엔=1,092원)에 달한다. 그리고 식육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감염 예방 대책으로서 개인용 보호구의 수천만 개 분의 배포, 체온이나 건강 관찰의 실시, 칸막이 판 설치나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식육 처리장의 개축, 검사의 실시, 감염 또는 농후 접촉자가 되었을 경우의 급여 보상, 처리장내의 여러 차례 소독과 환기의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감염 예방 대책에 따라, 일반 감염률보다 식육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감염율은 8분의 1 미만이다. 또 최전선에서 일하는 식육업계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산업계 노동조합 시민단체 주도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백신 배포 계획의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年2月号

2. (2021년 1월 29일) 코로나 대면 회피 대응, 원유 집유의 전과정 디지털 전환 가속화, Piper Systems社의 집유 자동화 시스템, 미 FDA 승인

아일랜드의 한 낙농기기업체가 개발한 집유 자동화 시스템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승인을 받으며, 원유 집유 작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iper Systems社의 원유 집유 자동화 시스템은 낙농생산의 효율성은 물론 정확성 및 추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집유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정밀 유량계를 사용해 원유의 무게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자동으로 입력해 별도의 문서작성이 불필요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바이러스 확산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분석에 필요한 원유 샘플을 채취하고, 원유 집유부터 운송 유통 그리고 집유 차량 및 기기세척(CIP)까지 모든 단계를 전산화해 투명하게 제공한다.

또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확한 탄소 배출량 계산을 위해 원유 집유 및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도 있다. 이에 이 회사는 까다로운 미국의 FDA 승인 절차를 통과한데 이어, 금년 본격적인 미국 낙농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경영] 원유 집유의 전과정 디지털 전환 가속화 - Piper Systems社의 집유 자동화 시스템, 미 FDA 승인’,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29일자
- 원문출처: bulktransporter.com, 1월 26일

3. (2021년 2월 15일) 미국,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식품 지원 연장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로 식량안보를 위협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P-EBT(Pandemic Electric Benefit Transfer)를 연장하였다. EBT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참여자들이 허가받은 식료품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EBT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미국 50개 주와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괌에서 통용되며, SNAP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P-EBT는 EBT를 기반으로 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 지원 정책으로, SNA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을 할인된 가격 혹은 무료로 제공받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가 폐쇄되자, 2020년 11월 4일부터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한다.

바이든 정부는 P-EBT의 자금을 15%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2021년 회계연도 전체로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약 2,900만 명의 성인과 1,200만 명의 아이들이 식량안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흑인 및 라틴계 가족들이 더욱 위협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P-EBT는 1인당 5.86달러/등교일수로 제공되고 있으나, 많은 가구에서 이러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P-EBT의 증가는 영양상태 개선뿐 아니라 경기 부양책으로의 효과도 존재한다. Canning and Morrison(2019)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시장 이자율이 낮은 경우(slow economy), SNAP의 효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달러의 SNAP 예산 투입은 15.4억 달러의 GDP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을 8% 감소시키고 특히, 아동의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NAP 수혜자와 일반 가구에 지원금 제공했을 때의 소비 금액 변화〉

구분	SNAP(달러/인)	일반 가구(달러/인)
내구제	6.1	0.5
식품	9.4	0.1
건강 관리	3.5	0.4
주거	2.7	0.2
비내구제	3.9	0.3
기타 서비스	3.2	0.5
계	28.8	2.0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Thrifty Food Plan의 개정 시도와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SNAP의 수혜금액을 결정하는 Thrifty Food Plan이 물가 상승과 건강한 식습관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무부는 개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는 의회에 SNAP의 수혜금액 15% 증가, 추가적인 30억 달러를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WIC)에 투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식품 공급 사슬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음식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식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 내에 10억 달러의 추가적인 영양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식품 지원 연장’,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6, 2021년 2월 15일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 “Biden Administration Expands P-EBT to Benefit Millions of Low-Income and Food Insecure Children During Pandemic” (2021.1.22.) 및 USDA-ERS의 Canning and Morrison(2019). “Quantifying the Impact of SNAP Benefits on the U.S. Economy and Jobs” (2019.7.18.)(<https://www.usda.gov/>)

II. 유럽

[EU]

1. (2021년 2월 1일)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농촌의 코로나19 대응과 2021 Food systems summit

EU 지역위원회는 2020 농업·농촌 대상 코로나19 대응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 규제 완화, 농식품 공급 사슬에 안전망(safeguard) 확보 등으로 시행되며, 이 정책들은 2021년부터 시행될 Next Generation EU 계획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농촌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감소한 반면, 농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90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와 공동농업정책에서 자금이 사용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 기금은 7,100만 유로가 감소함. - 2020년 4월부터 16개의 국가에서 약 40개의 정책이 농식품 분야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이에 35억 유로가 사용되었다.

국가와 지역별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비롯한 정책자금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체 57개 국가 및 지역 중 17개에서 100만 유로 이하의 농촌개발프로그램 정책자금 변경이 발생하였다. 이탈리아(10개 지역), 프랑스(8개 지역), 스페인(7개 지역), 독일(2개 지역), 포르투갈(2개 지역) 중에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1,700만 유로의 정책자금이 감소했으며,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3,100만 유로가 증가하였다. 2020년 7월에 M21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이 분배되었으며, 이는 ‘농가 성과’, ‘다각화, 중소기업체 및 일자리 창출’, ‘생산자 경쟁력’ 등의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지역 정부 중심으로 지원(state aid)이 시행되었으며, 주로 농가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존해주어 소득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 부문의 지역 지원 정책(State aid)>

지역	정책 내용	수혜자(명)	자금(백만 유로)
Wallonia	• 감자 생산자 및 보관업자에게 직접 보조금 지불	501~1,000	10.4
Flanders	• 감자 및 관상용 식물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 지불	1,450	35.0
Brussels	• 농업 및 수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 지불	50~1,000	0.2
Campania	• 농업, 어업, 버팔로 축산 농가 등에게 직접 보조금 지불	1,000	70.0
Friuli Venezia Giulia	• 농업, 임업, 어업에 대출 이자 지원 및 무이자 대출 지원, 직접 보조금 지불	500~1,000	50.0

EU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지역 정부가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고, 이를 Farm to fork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정책은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다.

(예산 확대 필요) 전염병으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농업 위기 계획)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Agricultural crisis reserve에 지속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

(간소화된 절차) 일괄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의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괄적용면제규정이란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상이 되는 정책들의 요구사항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다(No 651/2014 GBER 참조).

(정책 유연성 강화) 전염병 발생 시, 정책 수요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디지털 및 녹색 전환) EU 회복 계획에 농촌이 포함되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회복력을 배양해야 한다.

■ 2021 Food systems summit

2021 Food systems summit를 대비하여 2021년 7월에 이탈리아에서 예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1 Food systems summit은 2021년 9월에 뉴욕 UN 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만족하기 위하여 5가지 Action track을 설정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 Food systems summit의 5가지 Action track>

Action track	주요 내용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비전염성 질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품의 충분한 생산 및 공정한 식품 분배를 추구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으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의 식품 가치 사슬 강화, 식품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에 대한 노력을 통해 적은 생산 요소의 투입과 유통 거리 감소를 유도
친환경 생산 방식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가공, 분배 등에서 환경 자원의 최적 투입을 통해 생물 다양성 확보, 환경 오염, 물 사용, 토양 유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약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공정한 분배로의 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공급 사슬의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고용을 제공하여, 빈곤 탈출 및 사회보장을 통한 회복력을 확보
취약성, 충격,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영향으로부터 식품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공조를 유도

※ 자세한 내용은 2021 Food Systems Summit 홈페이지(<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농촌의 코로나19 대응과 2021 Food systems summit’,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 2021년 2월 1일

- 원문출처: EU 지역위원회, “Experiences of rural areas with European Union’s COVID-19 response measures” (2021.1.22.), “UN Food Systems Summit Community launch” (2021.1.21.)(<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 <https://enrd.ec.europa.eu/>)

[영국]

1. (2020년 12월 2일) 영국 식육가공협회, 식육처리장 종업원에게 COVID-19 백신 우선접종 요청

영국 식육가공협회(British Meat Processors Association)는 11월 20일 북아일랜드 식육수출업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식육처리장 종업원에 대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접종의 우선순위를 의료종사자에 이은 것으로 정부 백신예방접종 합동위원회에 요청했다.

닉 알렌 한국식품협회 CEO는 “식육처리장 내 작업 환경을 저온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환기에 의한 온도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덧붙여, “많은 식육 처리장은 농촌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숙박시설이나 통근 수단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많다. 이러한 요인이 식육처리장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정육처리장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안전과 안심이 확보되고 동시에 필수불가결한 식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9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증가했으며, 정부는 11월 5일부터 잉글랜드 전역에 대한 락다운(도시봉쇄)을 실시하고, 12월2일 이를 해제하였으며, 각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른 단계적 봉쇄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약품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승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신 조기접종 기대에 부풀어 이번 요청은 백신접종을 늦추지 않겠다는 업계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OVID-19가 육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유럽위원회가 10월에 공표한 육류의 단기적 수급 전망²⁾ 중에서도 COVID-19에 의한 육류 처리장의 조업정지 등

2)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海外情報, 「欧州委員会, 食肉の短期的需給見通しを公表 (EU)」

의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의 쇠고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한 것이 보고되고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年2月号

2. (2021년 1월 26일) 英 낙농업계, 필수 인력 유지 위해 통행권 발급 - 봉쇄 및 이동 제한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봉쇄의 최고단계인 4 단계가 시행중인 가운데, 낙농업계가 필수 인력 유지를 위해 통행권을 발급하고 있다. 최근 영국 경찰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위반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이동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영국낙농가협회(RABDF)는 해당 근로자는 식품산업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으로 봉쇄기간동안 이동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통행권을 만들어 배포하고, 낙농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시 이를 필히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英 낙농업계, 필수 인력 유지 위해 통행권 발급 - 봉쇄 및 이동 제한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26일자

- 원문출처: thecattlesite.com, 1월 22일

3. (2021년 2월 19일) 英,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급증. 치즈 소비량 15.7%, 요거트·버터 판매량 각각 4.1%, 16.1%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와 급격한 소비패턴 변화로 세계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유제품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영국 낙농가협회(RABDF)가 개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주요 유업체 관계자들이 발표한 유제품 시장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 소비가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낙농산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먼저 알라푸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홈쿡이 증가함에 따라, 치즈 소비량은 15.7%, 요거트와 버터 판매량은 각각 4.1%, 16.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러 관계자는 시리얼 소비량이 8% 증가함에 따라, 우유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3월 이후 봉쇄령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유제품 소비가 늘어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양호한 추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조심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94.html) 을 참조하기 바란다.

스럽게 예상했다.

한편 크림의 경우, 브렉시트 발효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른 유제품에 비해 소비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英,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급증 - 치즈 소비량 15.7%, 요거트·버터 판매량 각각 4.1%, 16.1%↑」,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2월 19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2월 16일

[러시아]

1. (2021년 2월 8일)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겪고 있는 러시아, 곡물 수출세로 아르헨티나의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어

곡물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식량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이 경쟁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경로를 따라 이집트와 같은 주요 고객들에 대한 귀중한 판매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 식량 가격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정부들은 이미 치솟는 국내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6월 2일부터 공식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고정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월 15일부터 수출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거래자들이 선도 판매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농업컨설팅사 Sovecon의 Andrey Sizov는 “새로운 곡물 수출세 도입은 러시아가 수년 동안 국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산물 수출을 제한해 온 아르헨티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세계 3위 옥수수 수출국이자 대두박 1위 공급국인 아르헨티나는 대두 및 곡물의 선적이 급증하면서 내수 가격이 상승하자 수출제한 조치를 거듭 내렸다. 남미 국가는 2018년 이후 경기침체를 겪었고 2020년에는 36.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한 무역업자는 “러시아 정부는 국내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밀 등 곡물 수출을 줄이는 데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면서 소매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자국 수출의 경제적 피해와 비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르헨티나는 이 코스를 여러 차례 밟았지만 이후 수출 손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risks repeating Argentina’ s mistakes with grain export tax(러시아, 곡물 수출세로 아르헨티나의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

음)’,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2월 8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779)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1년 2월 9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중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곡물 수출세 제도 승인

러시아 정부는 월요일 국내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밀, 옥수수, 보리 등에 대한 공식 수출세 제도를 승인했다. Mikhail Mishustin 총리가 서명한 명령에 따라 6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중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밀 수출에 대한 공식 세금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톤당 밀 기준가격과 200달러 차이의 70%로 수출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월 15일부터 공식적인 수출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수출품에 대해 일련의 고정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밀 수출세는 수출을 억제하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밀의 양을 늘려 국내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안되었다. 보리와 옥수수의 새로운 방식은 밀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수출세 계산시 200달러 대신 185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 approves formula-based grain export tax system (러시아, 곡물 수출세 제도 승인)’,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2월 9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78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몰타]

1. (2021년 2월 22일) 몰타, 코로나19로 바우처 우유급식 시행 - 매달 일주일에 한번 500ml 저지방 우유로 교환 가능

이탈리아와 인접한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에서 2020/21학년도 우유급식이 시행될 계획이다. 몰타의 학교우유급식은 건강한 식단에서 우유의 영양학적 효과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학교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정부와 유럽농업보증기금(EAGF)에서 예산을 할당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최근 몰타 정부는 금년 신학기를 맞아 학교우유급식에 441천 유로(약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교내 공급이 아

닌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존 공급량 보다 두 배 많은 양을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소속 초등학교 3-11세 어린이 중 신청자에 한해, 일주일에 한번 500ml 저지방(25%) 우유를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매달 각기 다른 색상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기한 내에 몰타의 모든 식료품점과 슈퍼마켓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정책동향] 몰타, 코로나19로 바우처 우유급식 시행 - 매달 일주일에 한번 500ml 저지방 우유로 교환 가능',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2월 22일자
- 원문출처: independent.com.mt, 2월 16일

Ⅲ. 글로벌

1. (2021년 1월 28일) 금년 세계 원유생산 1% 증가 전망, 英 AHDB 발표 -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및 식품 서비스 수요 회복이 주요인

올해 세계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영국 농업 원예개발공사(모유)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식품시장 붕괴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며 놀라울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원유생산량 증가율이 전망치보다 높아져,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이 2019년 대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원유생산국의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나 직접 구매를 통해 유제품 소비가 유지되고, 원유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U와 아르헨티나의 원유생산량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호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생산량이 전망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보급되며, 경기와 식품 서비스 수요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 원유생산량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남아메리카의 농가 수익과 중국의 유제품 수입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원유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생산] 금년 세계 원유생산 1% 증가 전망 英 AHDB 발표 -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및 식품 서비스 수요 회복이 주요인’,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28일자
- 원문출처: thecattlesite.com, 1월 27일

2. (2021년 2월 8일)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 주요 내용과 글로벌 리스크 - 코로나19 관련

[COVID-19 확산; The diffusion of COVID-19] 세계 경제는 COVID-19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위치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COVID-19의 광범위하고 빠른 확산세로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9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최근 3차 대유행(Third wave)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침체에 대한 극복; Coping With COVID-19]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유발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의 정책적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21년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며, 각국 정부의 재정적 수단을 동원한 백신보급, 취약계층 보호 등이 2021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한 산업의 변화; Industry transition by COVID-19] COVID-19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위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COVID-19를 경험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 비대면화, 친환경화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로 촉발된 기업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 주요 내용과 글로벌 리스크’,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5. [이슈 브리프]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년 2월 8일자

- 원문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21년 다보스 아젠다 위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021.1.22.

3. (2021년 2월 15일)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량 코로나19 악재 속 증가. 주요 원유생산국 생산량 증가...전반적인 수요도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 보여

대공황 이후 100년만에 최대 위기라는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EU 27개국과 영국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의 경우, 뉴질랜드의 7월부터 10월 누적생산량도 늘었고, 호주의 11월 누적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반구의 주요 원유 생산국의 경우, 2020년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했고, 아르헨티나는 7.2%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aily Dairy Report의 낙농분석가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식품서비스업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며, 증가한 원유 공급량이 갈 곳을 잃은 듯했으나, 정부 보조프로그램 소매 유통채널 등을 통한 전반적인 유제품 수요 증가로 식품서비스업의 수요 감소를 상쇄했다” 고 분석했다. 또한, 늘어난 원유 공급량만큼 최대 유제품 수입국인 중국의 유제품 수요도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지난해 세계 원유생산량 코로나19 악재 속 증가 - 주요 원유생산국 생산량 증가...전반적인 수요도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 보여’,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2월 15일자

- 원문출처: tdairyherd.com, 2월 3일

4. (2021년 2월 22일)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STI Outlook) 2021

<개요>

OECD는 2021년 1월 과학기술혁신 전망(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 Outlook)

2021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주요 변화에 대한 STI 정책적 대응이 주요 내용이며, 코로나19에 대한 STI 차원의 대응과 STI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주로 제시 하였다. 관련 보고서는 2~3년마다 발간되는 OECD 플래그십 보고서로, 과학기술혁신분야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핵심 트렌드란 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그랜드 챌린지 이슈에 대해 STI 대응 요구 증가, ② 디지털화로 인한 과학·혁신 프로세스의 변혁, ③ 정부 R&D 예산 감소, ④ STI 정책 설계·집행·모니터링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이다.

STI의 정책적 대응이란 ① SDGs 달성을 위한 STI 정책 지원, ②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③ STI 예산 감소에 대응한 공공연구 정책 방향 정립, ④ STI 데이터 접근성 강화, ⑤ STI 거버넌스 구축 및 국가 전략 수립 등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혁신 자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동원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 종식을 위한 유일한 출구 전략은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원이라 함은 공공연구소 및 연구기관, 민간 재단 및 자선단체, 의료산업은 역대 최단기간 내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일련의 신규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은 △코로나19와 확산 메커니즘 규명, △수백 종의 치료제와 백신 후보 물질 단기간 내 도출, △향후 다가올 위기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로 기존의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력이라는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주요 내용>

공공·민간 STI 시스템의 결단력 있는 코로나19 대응은 신속·중요

각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규모 코로나19 관련 연구비를 편성·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몇 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약 50억 달러 긴급 예산 편성, 2020년 6월부터는 기존 연구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과학계의 자원을 동원: 2020년 1~11월까지 75천 건 연구발간물이 발간되었으며, 그 중 3/4 이상이 오픈액세스였다. 연구발간물이란 Peer-reviews articles: books and documents, clinical trials, meta-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meta-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eviews and systematic reviews를 말한다. 오픈 액세스란 당뇨병(diabetes), 치매(dementia) 관련 연구발간의 경우 오픈액세스가 50% 이하인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정보들을 오픈액세스로 제공 중(<http://kobic.re.kr/COVID19>)이다. 코로나19 관련 연구발간물은 미국과 중국이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20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와 혁신의 핵심

2020.8월까지 국제공동연구에 약 \$20억 펀딩 약정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CEPI)과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국도 한국연구재단과 스웨덴 연구회 간의 코로나19 대응 공동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11월동안 코로나19 연구발간물은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중국 발간물의 약 1/4은 다른 국가 연구자와 공동 저자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이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인도 등이 코로나19 관련 국제 연구 협력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기업의 혁신 활동

바이오·제약 업계는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수백 건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다. 2020년 9월 16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NIH)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건수에서 한국은 17번째,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은 22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기업과 연구 혁신에 대한 영향은 분야별로 상이, 디지털, 제약 분야 기업들은 R&D 투자를 증가시킨 반면, 자동차, 항공, 방위 산업 등은 R&D 지출이 축소되었다.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할 2가지 신기술: 로봇과 합성생물학 지목

로봇은 헬스케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자연재해부터 인구 고령화 대응까지 사회적 복원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스케어란 실험실 보조, 수술 및 재활 치료, 약품 배송, 고독 치유, 진단 및 치료용 등을 말한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백신 제조에 활용될 수 있으며, 바이오 벨류체인에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Pfizer-BioNTech와 Moderna社 코로나19 백신 개발생산에 적합하다. 바이오 파운드리(Biofoundry)는 실험실 로봇들의 조화된 사용을 통해 상세하고 복잡한 작업 과정들을 고도로 자동화한 시설로 제품 생산시간 단축과 바이오 제조의 신뢰도와 재현성을 증진한다. 전통적 백신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운송의 한계 등을 합성 생물학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백신은 디지털 정보 형태로 빠른 전달과 배포가 가능하다. 개별 바이오 파운드리를 활용한 분산 생산(Distributed Manufacturing)은 백신의 독점(Baccine Nationalism)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로봇과 합성생물학 혁신을 위해 사전경쟁적인 인프라(예: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등) 플랫폼 등을 설립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술 연구자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도전

코로나19로 연구 활동에서도 디지털 툴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과학에서도 디지털 변혁과 데이터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취약 계층인 박사 후 과정 연구자들을 위한 한국의 키우리 사업(KIURI: Korean Initiative for fostering Universities of Research and Innovation programme)이 소개되었다.

저명한 연구자에 비해 박사 후 과정, 신진 연구자, 여성 연구자의 직업 안정성 등 연구 환경이 더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 연구 및 혁신 지원 방식의 변화 추이

정부의 기업 R&D 지원 방식이 직접 지원은 줄이고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R&D 세제 혜택을 실시하는 국가가 2006년 36%에서 2018년 56%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국 첫 직접 지원(GDP 대비 0.16%)은 3번째, 조세지원(GDP 대비 0.13%)은 9번째, 모두 고려하면 4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포용성·회복성 등 도전과제 해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

정부의 STI 정책 믹스(Policy Mix)의 정교한 재설계와 정부 R&D 지출에 새로운 우선 순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난제 해결을 위해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는 다학제적(Transdisciplinarity)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자 경력 경로의 다양성을 위해 박사 및 박사 후 과정 등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는 글로벌 해결 방안을 요구하므로 국제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미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량 구축 자체가 주요 도전과제이다.

<정책적 시사점>

코로나19의 궁극적 해결 방안은 백신 개발인 것처럼, 향후 글로벌 도전과제에서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통해 과학기술혁신(STI)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항으로 △STI 정책 믹스 재설계, △다학제적 접근법 장려, △박사포닥 등 교육과정 개혁, △글로벌 협력 강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정부 자체 역량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트렌드 2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STI Outlook) 2021’,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7. 2021년 2월 22일자
- 원문출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STI Outlook)2021 ‘ 2021.2.1.(출처: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2021.1.21. 발간)